



# 가톨릭 안동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통합 생태적 교회를 향하여  
실천사항- 생명의 밥상을 차립시다.

제353호 2025년 10월 5일(다해) 연중 제27주일



<텃밭 가꾸기>

"생명의 밥상을 차립시다."  
예천 성심 어린이집

제1독서 하바쿱 예언서 1,2-3; 2,2-4

화답송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손상오 신부 곡



제2독서 티모테오 2서 1,6-8.13-14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바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전해진 복음이다. ◎

복음 루카 17,5-10

영성체송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

## 인애(仁愛)

우곡성지 담당  
윤성규 바오로 신부



제자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을 언급합니다. 겨자씨를 화분에 심어 본 적이 있습니다. 싹을 틔우지는 못했지만, 정말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이 작은 씨앗이 비옥한 땅에서는 3m 정도로 자랍니다. 그러면 “나무가 되어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입니다”(루카 13,19).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나무가 되어 새들에게 자신을 내어줍니다.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웃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라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뜻하시는 믿음은 갈라티아서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갈라 5,6)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요한 15,9)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믿음의 삶이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뜻하시는 사랑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이 사랑에 대해 한국의 신앙 선조들이 끊임없이 묵상했던 초대 교리서 ‘칠극대전’의 내용을 전해 드립니다. 저는 홍유한 선생의 삶을 기리는 우곡성지에서 생활하며, 제 신앙의 삶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초대 교리서 ‘칠극대전’에서 3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는 습애(習愛)입니다. “익숙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같이 살거나 직업이 같거나 감정이 같거나 의견이 같은 것처럼 서로 익숙해서 사랑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고 있다면, 천주께서 바라시는 남을 사랑하는 덕은 아닙니다.

둘째 이애(異愛)입니다. “이치로 따져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사람들과 함께해야 하는 것을 스스로 안다. 이 때문에 항상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다. 이것은 인간의 일이어서 그 사랑함이 사적이고, 덕이 됨은 미약하며, 악인 또한 이런 사랑은 있다.” 이 또한 천주께서 바라시는 사랑은 아닙니다.

셋째 인애(仁愛)입니다. “어짚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어진 이는 남을 자기와 같은 성품을 지닌 천주의 자녀로 보아, 그를 사랑하고 그가 복을 얻기를 원한다. 어진 사람은 먼저 스스로 천주를 참되게 사랑하고, 천주의 사랑을 옮겨서 사람을 사랑한다.” 이것이 천주께서 바라시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뜻하시는 사랑을 품고 옮겨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믿음의 여정에서 어떠한 사랑을 하고 있을까? 되새겨 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예천 성심 어린이집

### 표지 사진 설명



성심어린이집 원아들은 따뜻한 봄날 씨를 뿌려 직접 텃밭 가꾸기를 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생명을 키우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친구들은 등하원 때마다 “채소들아 안녕?”, “무력 무력 잘 자라~” 인사하고, 텃밭 때마다 직접 물을 주며 정성을 듬뿍 쏟았습니다. 그렇게 한 덕분인지 방울 토마토와 오이는 초여름부터 주렁주렁 결실을 맺어 바깥 놀이 시간마다 자유롭게 직접 수확하고, 그 자리에서 남남 맛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 뿐 아니라 땀을 많이 흘리는 더운 날 수분을 보충해주고 더위에 지친 피부를 위해 오이 마사지도 할 수 있어서 성심 어린이집 친구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소중한 경험이 우리 아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거름이 되어 마음도 쑥쑥 자라날 거라 믿습니다.

※ 2025년 「가톨릭안동」 1면에는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실천사항: 생명의 밭상을 차립시다>에 따라 가톨릭 농민회의 주요 사건과 생명 농업의 생산- (분회)-판매(우리농 매장)- 소비(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다룹니다. <안동가톨릭농민회>에서 제공해 준 사진과 자료를 토대로 목상글을 담습니다.



## 가나안 여인 1

이제 우리는 마태오 복음 15,21-28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감탄케 한 가나안 여인을 만나보겠습니다. 비록 그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기에 유명(有名)하다는 표현은 어색하겠지만, 복음을 읽는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인물임은 분명합니다.

어느날 예수께서 이스라엘 북서부 해안에 위치한 이방인들의 도시인 티로와 시돈에 들리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땅을 밟는 것조차 꺼렸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방인 지역을 지나야 했을 때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오기 전에 발에 묻은 먼지까지 털어내고 들어오곤 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위험한 생화학 물질이 있는 방에 들어갔다 나올 때 공기 샤워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방인을 치명적인 병균처럼 여겼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티로와 시돈은 구약성경에서 곧잘 저주받은 도시들로 등장합니다: “티로의 모든 임금과 시돈의 모든 임금과 바다 건너 해안 지방의 임금들 ... 내가 너희 가운데에 보내는 칼로 말미암아 너희는 마시고 취하며, 토하고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마라”(예레 25,22. 27)

이들의 바알을 비롯한 온갖 우상들의 숭배가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을 그 뿌리까지 흔들 정도로 위협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방인 지방에서 한 가나안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땅의 원주민이었던 가나안인의 후손입니다.

사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유대인이거나 가나안인이거나 모두 한 핏줄입니다. 가나안인은 멀리 보면 노아의 아들인 셈, 함, 야벳 가운데 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다. (창세 9,18)

좀 더 가까이 보면 가나안 땅에 살던 아브라함의 후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가나안인은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돼지라 부를 정도로 경멸하고 천시했습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은 사람의 신분을 14등급으로 분류했는데, 이방인은 성불구자보다도 낮은 최하 등급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가나안 여인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주님, 다윗의 자손이시여’(15,22)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단순히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도 사용되었던 호칭이지만, 이어지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호칭인 ‘다윗의 자손’과 함께 사용된 것으로 볼 때, 이 이방인 여인은 아직 많은 유대인, 심지어 제자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오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발치의 가나안 여인, Jean Germain Drouais, 1784년 작

매월 첫 주에 연재됩니다.



## 교구장 동정



10월 9일(목)  
• 박석희 이나시오 주교님  
선종 25주기 미사,  
• 어르신의 날(의성지구)  
10월 12일(일)  
• 2027 서울 WYD 안동교구대회  
발대식 및 청소년 축제

## 교 구



故 박석희 이나시오 주교님  
선종 25주기 미사  
일 시: 10. 9(목) 10:30  
장 소: 농은 수련원  
성직자 묘역

## 봉안경당 한가위 미사안내

일 시: 10. 4(토) 15:00  
10. 5(주일) 15:00  
10. 6(월) 11:00 / 15:00  
미사예물 접수: 농협 737-02-167722 김도겸

## 의성지구 어르신의 날

일 시: 10. 9(목) 10:00~ 15:00  
미 사: 14:00(주교님 집전)

## 수취폐 도미네와 함께하는 성시간

일 시: 10. 10(금) 20:00  
장 소: 예천 본당  
대 상: 누구나

## 교구 위원회·제단체장 모임

일 시: 10. 11(토) 15:00  
장 소: 교구청 3층 대회의실  
참석 대상: 교구 위원회/단체 대표  
(단체장 또는 대리인)  
준비물: 2026년 연간계획서(안)

## 10월 열린성경 강좌

일 시: 10. 13(월) 19:30~ 21:30  
장 소: 갈전 마티아 본당  
준비물: 성경, 필기구, 참가비 5,000원

## 공소 수녀, 선교사모임

일 자: 10. 14.(화)~ 15(수)  
장 소: 봉화 예던길 선유교

## 제 단 체

## 생태환경위원회 '생태특강'

일 시: 10. 25(토) 10:00~ 12:00  
장 소: 농은 수련원  
대 상: 교구 신자 누구나(선착순 60명)  
강 사: 정수희(에너지 정의행동)  
주 제: 탈핵의 이유-민주주의와 에너지 정의  
신청기간: 10. 5(주일)까지  
신청문의: 김상미 글라라 총무 010-5164-2900

## 교구 성령 쇄신 봉사회 10월 기도회

일 시: 10. 26(주일) 16:00  
장 소: 의성지구 / 의성 본당  
지 향: 성령의 위로와 희망의 기도

## 수 도 회 · 피 정

## 10월 토요일 낮 피정 및 철야기도

• 10월 토요일 낮 치유 대피정  
일 시: 10. 11(토) 12:00~ 17:30  
강 사: 한연흠(다니엘)신부님  
• 삼성산 사랑의 성령봉사회 철야기도  
일 시: 매주 화요일 21:30~ 익일 04:00  
문 의: 010-3310-8826, 02-874-6346  
장 소: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미사/안수/증식무료)

## 사제, 수도자와 함께하는 제주 산들순례피정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제주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대 상: 개인 및 각 본당 단체에 맞는  
프로그램 진행

위령성월피정: 11. 2(일)~4(화)  
생태순례: 10. 12(일)~14(화), 10. 27(월)~29(수),  
12. 6(토)~8(월), 12. 12(금)~14(일)  
성지순례(추자도): 11. 22(토)~25(화)  
연말연시 피정(한라산-해님이-해돋이):  
12. 31(수)~1.3(토)  
(2026년 피정 접수중)면형의 잡: 064-732-4702

## 성모술쵸 무료 치유대(對)피정

값없이 먹고 자고 원 없이 기도하자  
기 간: 매월 둘째주 금~일요일 (2박3일)  
10. 17(금)~ 19(일)/ 11. 7(금)~9(일)/  
12. 12(금)~14(일)  
문 의: 010-3209-3955 [문자접수]  
경북 청도 기차역에서 무료 픽업 신청 가능

## 콘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성소모임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처럼  
예수님을 따라 복음적인 삶을 함께 살아갈  
청소년&청년을 기다립니다.  
문 의: 권정대 베드로 수사 신부 010-4344-1997

## 교 육

## 가톨릭상지대학교

## 노인 상담기법 무료 교육

일 정: 10. 18(토), 25(토)  
시 간: 09:00~ 14:30 (총 2일 10시간)  
내 용: 실제 사례 중심 상담 자세 및  
대화법, 노인 상담기법, 실습 등  
대 상: 고용보험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근로자(협약서 제출 필요)  
문 의: 가톨릭상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054-851-3137

## 실버헬스케어 무료 교육

일 정: 11. 15(토), 29(토)  
시 간: 09:00~ 15:30 (총 2일 12시간)  
내 용: 인지의 이해, 인지 평가,  
인지 운동활동실습 등  
대상: 고용보험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협약서 제출 필요)  
문 의: 가톨릭상지대학교 공동훈련센터  
054-851-3137

## 산자연중학교(대안교육) 학교설명회

일 시: (2차) 10. 18(토) 14:00  
대 상: 현재 초6, 중1  
문 의: 054-338-0530  
\*전·입학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흥동성당 성전건립 기금마련 영양 고춧가루 판매(1KG포장)

보통맛 35,000원 / 매운맛 36,000원  
고추장용 보통맛 37,000원 / 매운맛 39,000원  
\*주문·문의: 010-3813-4405  
계좌: 농협 351-0375-1299-03 안동교구